한우 키울수록 손해라는데…사룟값 올리는 농협

1분기 전남 한우 농가 전년비 5.6% 감소…육우 마리당 202만원 적자 농협사료, 전 축종 사료 kg 당 15원 인상…한우농가 "상생 외면" 반발

전남지역 한우 농가 수와 사육 마릿수 모두 3년 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우 도 매가는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생산비는 지속 상 승하면서 한우 사육을 그만둔 농가들이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가들이 한우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 사료 업계 1위인 '농협사료'가 사료비를 또 다 시 기습 인상하면서 한우 농가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지역 한우 농가 수는 올해 1분기기준 1만 4528호로 직전 분기(1만 4704호) 대비176호(1.2%) 감소했고, 전년 동분기(1만 5394호)보다는 866호(5.6%) 줄었다.

전남지역 한우 농가 수는 2021년 4분기부터 13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이는 코로나19에 이어 러-우 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료 원자재 값이 뛰었고, 유가도 지속 상승하면서 농가 운영비 등 전반적인 생산비가 오른 반면 한우 도매가는 지속 폭락했기 때문이다.

지역 한우농가에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곡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최근 4~5년 동안 한우 생산비가 도매가를 넘어선 역마진 구조를 유지하면서, 한우 사육 농 가와 지역 내 사육 물량도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전남지역 한우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올 1분기 기 준 59만 6251마리로 직전 분기(62만 2551마리) 와 비교해 2만 6300마리(4.1%) 급감했다.

전남에서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안성주(46)씨는 "한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사룟값 등 생산비만 상승하면서, 한우 1마리를 키우면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막했다

안씨의 하소연 처럼 최근 5년간 한우 생산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우 육우 1마리 당 생산 비는 2023년 기준 평균 621만원으로 3년 전인 2020년(536만원) 대비 15.8% 증가했다. 2023년 기준으로 육우 두당 수익성은 202만 415원 순손 실을 기록했다. 한우 비육우의 경우 1마리 당 생산비는 2023년 기준 평균 1021만원으로 2020년(932만원)보다 9.5% 늘었다. 같은 기간 비육우 두당 수익성도 142만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농가 규모별 구분에서도 모든 구간이 적자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 보면 20두 미만을 사 육하는 한우 농가는 두당 420만원 순손실을 봤고, 20~49두(-208만원), 50~99두(-127만원), 100 두 이상(-60만원) 등 농가 규모와 관계없이 순손 실을 기록했다.

한우 농가들의 경영난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우 도매가 회복은 여전히 더딘 가운데, 농협사료가 지난 19일 전 축종에 대해 사 료비를 1kg 당 15원씩 인상했기 때문이다.

총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데, 가격 인상 주체인 농협사료가 사료업계 전국 1위 규모라는 점 등이 농가에도 큰 부담을 주 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사료 측은 "이번 사룟값 인상은 환율 상승 및 곡물가격 급등, 경비 상승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전국한우협회 및 한우 농가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한우 농가들의 현실과 상생을 외면한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집중호우 등 재해 대비 시설 점검

배수장·배수갑문 277개소 펌프장 재난상황 가정 훈련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20일 전남지역 농업기반시설물의 배수시설 등을 사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 시됐다.

전남지역 내 배수펌프 기계 및 전기시설이 포함 된 배수장 163개소와 배수갑문 114개소가 이번 점검의 대상시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각 지사 및 지역본부에서는 실무 점검반을 편성하고, 본격 적인 우기철 전에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더불어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29~30일 전남지역 소재 배수펌프장 전체에 대해 재난상황 발생을 가 정한 훈련도 실시한다. 해당 훈련은 실제 상황과 같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황 메시지를 전달받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이 상기후로 인한 재해 상황에서 제 때 배수시설을 가 동하고, 적절한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온라인 판로 확대 희망 농가·기업 모집"

30일까지 접수… '농부가 바로팜' 기획전 참여 혜택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 부와 함께 오는 30일까지 '농산물 온라인 마케터 육성 사업'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 참여사 모집은 농가들의 온라인 거래 역량 제고 및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농가 또는 기 업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규모는 일반 농가·기업 200여 개소, 친환 경 농가·기업 50여 개소다.

최종 선정된 농가 및 기업에게는 온라인 입점·마케팅 교육, 1:1 맞춤형 컨설팅, 상세페이지 또는 영상 제작, 주요 온라인 유통사와 연계한 '농부가바로팜' 기획전 참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모든 참여사는 교육 과정을 최소 1개 이상 이수

해야 하며, 지원 항목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농식품 마케팅 실무 교육 기회가 포함되고, 우수 사업 참여 사에게는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유튜브 홍보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aT 누리집 내 '유통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운도 aT 유통이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 자들의 역량 제고와 더불어 온라인 시장에서 판로 를 확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물가 잡아라"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판매 지원

6월 4일까지 최대 40% 할인 혜택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밥상 물가 안정' 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농산물 먹거리들을 중심으로 할인 판매 행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앞서 추가경정예산(추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경)으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 1200억원을 확 보한 바 있다.

지원 예산 등을 통해 각 유통업체들은 국산 농산 물 중 할인 품목을 지정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한 다는 방침이다.

각 유통업체들의 할인 품목 및 할인율 등은 업체 의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소비자들은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 한도는 1주일에 1인당 2만원까지 적용된다.

오프라인 매장 회원의 경우 결제 시 자동으로 할 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 단계 에서 적용해야 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참돔·낙지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수부, 6월 5일까지 진행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한다.

점검 대상으로는 활참돔과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5종이 선정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 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 시하는 등의 행위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부, 논콩 의무자조금 설치 회의

농산업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일 "논콩 의무 자조금 설치 논의를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논콩 임의자조 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마련됐으며, 콩 생산 자단체인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국 산콩생산자연합회, 농협중앙회와 지자체 등이 참 석했다.

논콩 자조금은 콩 관련 농산업자가 납부한 자금 으로 조성되며, 농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와 콩 생산자의 소득 안정망 구축 등을 목표로 운 영된다. 논콩 의무자조금을 도입할 경우 콩 관련 농산업자가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콩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 밖에 콩 수급안정, 소비촉진, 홍보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해 농산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회의에서는 출범이후 자조금 추진 경과 및 운영 방안, 의무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구성원 간 협의를 바탕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관리,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논콩 재배 농업인들을 비롯한 농협과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영기자 zzang@

❷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 점 ·여신사업부 ·양산지점 ·운암지점 ·매곡지점 ·첨단지점 ·동광주지점 ·문흥지점 ·동림지점 ·각화지점